

GIGA LCK 프로젝트 회고

이 윤 하

프로젝트 개요

이번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약 5일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로, 기존 프론트엔드 개발 경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백엔드부터 프론트엔드까지 풀스택으로 구현해본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잘한 점

- 첫 풀스택 프로젝트 도전
 - 이전까지는 프론트엔드 개발 경험만 있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Spring Boot**를 이용한 백엔드 구축과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연동 경험을 새롭게 쌓을 수 있었다.
 - 프론트엔드(**Vue.js**, **Pinia**, **Tailwind CSS**)와 백엔드(**Spring Boot**, **JPA**)를 직접 연결하며 전체 개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 다양한 **API** 활용 경험
 - **Riot API**, **YouTube API**, **Naver API**, **OpenAI API** 등 다양한 외부 **API**를 처음으로 직접 다뤄보며 데이터를 서비스에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실무적인 **API** 활용법을 익힐 수 있었다.
- **AI** 코딩 툴의 효율적 활용
 - **GPT**, **Cursor** 등 **AI** 기반 코딩 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단순히 제공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드백과 로직을 꼼꼼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 최종 결정은 개발자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AI**가 제시한 해결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적절히 조정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

개선이 필요한 점

- 초기 데이터 구성 및 최적화
 - **API** 호출 속도,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으며, 특히 **API** 호출 제한 및 데이터 처리 로직 최적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테스트와 예외 처리 부족

- 급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코드의 안정성이나 예외 처리를 위한 테스트가 부족했다.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체계적인 테스트 주도 개발(TDD)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배운 점 및 앞으로의 다짐

- 풀스택 개발 역량 강화
 -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체 개발 사이클을 경험하며 풀스택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키웠으며, 앞으로도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연결하는 경험을 꾸준히 쌓아갈 예정이다.
- AI 도구의 적절한 활용 방법
 - AI 코딩 툴이 주는 편리함을 경험하면서도, 중요한 의사결정과 책임은 결국 개발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앞으로도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되 최종 판단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의 프로젝트에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